



풍수소고

한국보수코리아 대리 이병태

풍수설(風水說)은 땅에다 일종의 신비력을 인정하고 그 힘이 사람에게 미치는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설명한다는 중국 고래의 민간이론이다. 성(城)·가옥·묘자리 따위를 만들 경우, 풍수에 맞게 만들면 행운을 부르고 또 지손들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다. 풍수는 지술(地術)이라고 하는데, 지리(地理)를 보아 그 터의 점을 치는 일종의 술법이다.

풍수의 전문가는 지관 지사(地師)·풍수장이 등으로 불렸으며, 특히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크게 민심을 지배해 있다. 멀리 중국 후한의 청오자(靑烏子)가 쓴 《청오경》이 기원이라 하나, 후에 일정한 체계를 세운것으로 진(晉)의 곽박(郭璞)이 쓴 《장서(葬書)》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산세(山勢)·지세(地勢)·수세(水勢) 등을 판단하여 이것을 길흉과 화복, 곧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인 인간의 길흉화복에 연결시키는 설이 소위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을 줄여서 풍수설 또는 지리설이라고도 하는데, 도성(都城)·사찰·주거·분묘(墳

墓) 등을 축조하는데 있어 재화(災禍)를 물리치고 살아있는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지상(地相)을 판단하려는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감여(堪輿)라고 하는데, 감은 천도(天道), 그리고 여는 지도(地道)라는 것이다. 하늘과 땅 곧 천지(heaven and earth)를 지칭하는데, 이러한 풍수지리학을 공부한 사람을 감여가(堪輿家)라고 한다.

또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을 풍수가(風水家)·풍수선생 지리가 음양가 등 여타가지 이름으로 우리는 흔히 부른다. 그들은 방위를 청룡(靑龍·東)·朱雀(朱雀·南)·백호(白虎·西)·현무(玄武·北)의 4가지로 나누어, 모든 산천과 당우(堂宇)는 이들 4개의 동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했고, 어느 것을 주로 하는가는 그 장소나 풍수에 따라서 판단하여 다르게 된다.

그리고 땅 속에 흐르고 있는 정기(正氣)가 물에 의해 방해되거나 바람에 의해 흩어지지 않는 장소를 찾아 산천의 형세에 따라 선택하여, 살 주거를 짓거나 조상의 묘를 쓰면 후손은 그 정기를 받아서 부귀와 복을 톡톡히 누리게 된다고 믿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도선비기 (道詵秘



記)》는 신라 말기의 중 도선(道詵)이 지었다고 전하는 일종의 예언서이다. 당시 유행하던 참위서(讖緯書)의 하나로 추측되나 지금은 전하지 않고 《고려사(高麗史)》에 그 이름만이 남아있어 전할뿐이다.

도선(827~898)은 신라 말엽의 고승으로 흥덕왕 2년에 태어나서 효공왕 2년에 입적했다. 그는 향년으로 고화를 넘겼으니 당시로서는 장수한 셈이다. 속성은 김씨, 전라남도의 영암(靈巖) 출신이고 후에 신승(神僧)으로 추앙되었다. 혜철대사(慧鐵大師)에게서 《무설설(無說說)》 《무법법(無法法)》을 배워 크게 깨달았고, 운봉산(雲峰山)에 들어가 그곳에 굴을 파고 들어앉아 오묘한 참선삼매(參禪三昧)의 불도를 닦았다고 전한다. 그는 천강왕의 초빙으로 궁중으로 들어가서 많은 영향을 주었고, 다시 산중에 들어가서 도를 닦았다. 그의 음양지리설(陰陽地理說)과 풍수상지법(風水相地法)이 고려와 조선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위설은 중국 한대(漢代)에 성행되었던 예언설이다. 참(讖)은 하늘에서 내려졌다고하는 예언, 위(緯)는 옛날 중국의 성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름의 총칭인 경서(經書)에 대비되는 위서(緯書)를 말하는데, 미래의 일이나 길흉화복을 예언한 책을 이른다. 즉 음양오행설이나 천문역수(天文曆數)의 지식으로 경서를 해석하여 공자(孔子)의 참사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 진대(秦代)에 비롯된 음양오행설에 바탕을 두어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던 학설인데, 공교롭게도 이는 사회불안에 따라 한때 유행하였다. 두 가지가 모두 신비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후한(後漢)시대에 이를 일괄하여 참위라고 하는 명칭이 생겨났다. 미래의 길흉화복의 조

집이나 그에 관한 예언(prophecy)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후 참위설은 왕조의 교체를 정당화하는 예언으로 교묘하게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의가 크다. 왕망(王莽)이 전한(前漢)과 대체될 때 또 후한의 광무제가 왕망을 타도할 때 참기(讖記)가 나타났고, 황건적의 난 역시 이것을 교묘히 이용하였다. 그러나 진(晉)나라 이후 참위가 민심을 현혹한다고 해서 이를 금지하였고, 특히 수나라 때에는 위서를 모두 불태워 버렸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도 궁예의 후고구려에서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하여 전해온다. 상지(相地)는 민속에서 땅의 생김새를 살펴보고 길흉을 판단하는 일인데, 풍수지리설은 지형과 방위를 인간의 길흉화복과 관련시켜 죽은 사람을 매장하거나 집을 짓는 데 적당한 장소를 구하는 이론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을 믿는 민간신앙의 하나가 풍수신앙(風水信仰)이다. 산천의 지세(地勢), 맥락과 형국(形局), 좌향(坐向) 등을 모아 양지의 주택지와 음지의 묘지를 길흉을 점쳐서 장태의 복록을 구하는 신앙이다.

다만 중국은 드넓은 땅덩어리 때문인지 그들은 고대로부터 소위全美(全美)풍수를 지향하였다. 즉 티 없이 완전히 아름다운 땅, 완벽한 풍수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땅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흠결(欠缺)이 있는 땅이라도 도와서 묘자람을 채우는 이른바 비보(裨補)풍수를 추구하였다. 보충하고 보완해서 비보(vivo)의 땅을 만들어 합치고 빠른 역동(力動)하는 터전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나라를 돕는다는 도참설(圖讖說)과 불교신앙에 따라 전국 각지에 세운 절이 바로 비보사찰(悲報寺刹)인데, 약 3,800개의 이러한 사찰이 전국에 있었다고 한다.